

일주문



불교역사 문화탐방
대원사 티벳박물관 현장 스님은 3월 22일 호남불교문화원(원장 이준업)과 함께 우리문화의 원류인 불교역사 문화 탐방을 떠난다.(062)383-3538



나를 찾아가는 3000배 정진법회
대구 은적사 주지 허운 스님은 3월 15-22일 틈비니유치원 법당에서 '나를 찾아가는 3000배 발심 정진법회'를 봉행한다.(053)653-1572



치과진료버스 무사운영 기원법회
불교의료봉사단 반갑다연우아 구자선 단장은 3월 18일 서울 봉은사에서 '이동치과진료버스 무사운영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태안 기름제거 봉사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3월 27일 오전 7시 여성불자들이 태안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떠난다. 접수는 20일까지.(02)722-2101



경부운하 구간 답사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소장은 3월 22일 오전 8시부터 경부운하 구간 답사 '한강의 숨겨진 유산을 찾아서'를 진행 한다.(02)745-5813

77세 '세계 지붕에' 오른다

네팔인 세르찬씨 세계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정 예정

"세계 평화의 염원을 담아 에베레스트에 오릅니다. 한국도 남·북이 형제로 하나된 나라로 영원한 평화를 누리길 기원합니다."
희수(喜壽)를 맞은 77세 네팔인 민 바하두르 세르찬씨가 5월 중순 에베레스트 등정을 앞두고 한국을 찾았다.



메세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세르찬씨의 에베레스트 등정과 세계평화를 향한 서원에는 많은 이들이 뜻을 함께 모았다. '2008년 77세 네팔 노인의 에베레스트 등정(SECEED)' 프로젝트가 결성돼 웹 진다지 구룡 회장(네팔-말레이시아 문화협회)과 난다 바하두르 싱 교수(네팔 트리부반데) 등이 실무와 후원을 맡아 후원금을 모았다. 2004

년 8시간 10분 만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최단시간 등정 기록을 갖고 있는 캄바 도르 제지도 등정팀의 리더로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밤 라와피 운영위원장(한국-네팔 프렌드쉽 협회)이 후원을 돕는다. 라와피 위원장은 "에베레스트 등정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문화관광부, 화제사 신도회 등에서 도움을 줬고, 한국에 있는 네팔인들도 작게나마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에베레스트 최고령 등정기록은 일본인 야나기사와 카츠스케(71세)가 2007년 세운 것으로, 세르찬씨가 5월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면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정자가 되기 특약에 남게 된다. 세르찬씨는 도움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표고고자 에베레스트 정상에 후원자 명단을 남길 예정이다. 세계 최고 높이의 에베레스트에 오르고 나면 그는 무엇을 할까?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지 않나"며 웃음을 보인 세르찬씨는, "후원금을 모아 노인복지시설을 지어 이웃을 돕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02)986-2857, www.mtevere.se2008.org.np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224-479971 (예금주 BOGATI)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jwpark@buddhapia.com

조계종 부동산관리 자문위원 윤천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3월 12일 종단 부동산관리 자문위원에 윤천수 정일감정평가법인 회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기는 2009년 12월 11일까지다. 윤천수 위원은 사단법인 불교이데미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전국감정평가사 불자회 회장과 조계종 중앙산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연꽃마을에 생필품 보시



태고종 총부교구 총무원 (원장 원혜)은 3월 6일 범종사 예천 연꽃마을(주지 정안)을 방문, 의류 1200여점 쌀 120kg 생필품 등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혜철 총창치사장

대한불교교사대학 졸업·입학식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은 제9기 졸업식 및 10기 입학식을 3월 8일 부산불교회관 4층 대강당에서 봉행했다. 포교원장 혜종 스님, 이사장 지현 스님, 학장 정여 스님, 이사 심산 스님 및 졸업생 55명과 입학생 56명,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여 스님은 "모든 사부대중의 열력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힘과 열정을 다해 활동해주시길"을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상은 졸업사 중 문영걸씨가 수성했다.
하성미 기자

조동종 산행회 모임



지난 1월에 결성된 대한불교조동종 산행회는 3월 4일故 부총정원 반추모대제를 지내고 울산종무원장 정담 스님을 산행회 회장으로 추대하면서 대구시 대명동 해광사(산행정진원) 스님 1에서 발대식을 위한 간부 모임을 가졌다.
청운경남부담치사장

중앙승가대 법인사무처장 정안 스님



신임 중앙승가대 법인사무처장에 정안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중앙승가대 이사장)은 3월 11일 정안 스님에게 중앙승가대 법인사무처장 임명장을 전달했다.

순천 송광사에서 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정안 스님은 해인사 강원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중앙승가대 교무국장, 도서관 사서국장, 전산교육원국장, 총무처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가평 보원사 불사도감을 맡고 있다.
조동섭 기자

이해찬 前총리 운암기념사업회장 추대



사단법인 운암기념사업회 창립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전 총리는 다음 달 1일 공식 취임해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운암 김성숙(1898-1969) 선생은 분신사 스님 출신의 항일 독립운동가로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냈으며, 국가보훈처가 올해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전 총리는 다음 달 1일 공식 취임해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운암 김성숙(1898-1969) 선생은 분신사 스님 출신의 항일 독립운동가로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냈으며, 국가보훈처가 올해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총리를 제3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사업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견지동 기념사업회 회의

“내게 각별한 의미...신행활동에 최선”

청와대불자회 김병국 신임회장



이명박정부의 종교편향적 인사에 대한 불교계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청와대 불자들의 실행단체인 '청불회' 신임 회장에 김병국(49)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선출됐다.

김 회장은 3월 12일 인사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불교에 대해서는 '가방 끈이 짧은' 불자이지만 독실한 불자이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신심(信心)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하지만 청불회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인 김 회장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미국 내 한반도전문가들과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발령은 능인선원장 지관 스님에게 받은 정전(淨川).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불자회의 틀이 잡히는 대로 같이 신행활동을 펼쳐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김영국 총무원장 정책특별보좌관은 "부처님오신날 전인

4월 중순이나 말쯤 조계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청와대 내에 박재원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김은혜 제1부대변인 등 불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으로 감투 욕심은 별로 없지만, 청불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제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로 청불회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에방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내걸었던 불교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박정부의 종교편향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른 오해이며,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시종해 나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불자들이 불교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불교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탤런트 한지민 나눔의집에 성금



MBC드라마 '이산'에 출연 중인 탤런트 한지민씨가 3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원장 원혜)에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한씨는 故 문필기 할머니의 장례식이 열린 7일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나눔의집에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한씨가 출연했던 KBS 2TV드라마 '경성스캔들'의 팬들도 9일 나눔의집을 찾아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역사관 견학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만불회 중앙승가대 장학금 전달

영헌 만불사가 설립한 재단법인 만불회(이사장 학성)는 2008년부터 중앙승가대(총장 종범)에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3월 10일 1학기 장학금을 중앙승가대에 전달했다. 장학금 규모는 매 학기 500만원, 년 1천만 원이다.
조동섭 기자

본 종단에서는 석가세존의 자비사상바탕으로 수행정진에 힘쓰는 중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찰 및 사암등록을 환영합니다
※ 행사모집(스님이 되고자하는분) : 일체 교육비 받지 않음(6개월간 무료 교육) 스님 양성
※ 동자모집 (불우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대까지 책임지고 교육)
□ 유관단체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세계불교무술총연합회,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세계불교고승연합회, 영남범음법대 교육원
※본 종단 입종후 중도연수교육 수료한후 승려증을 발급합니다.
※본 종단은 강원 및 울원 선원 불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범음법대 이수 받으실분은 문의 바랍니다.
※본 종단에서는 무속인은 일체등록을 불허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고원사
TEL : 054)382-3363,3397 / FAX : 054)383-5005 www.gowonsa.com

천기누설을 가장 많이 한 책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정신병의 70% 이상은 귀신에 의하여 생기는 병이다. 귀신처리만 정확히 하면 정상인이 된다.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기가 있어 고생하시는 분, 어딜가도 답을 못 찾으신 분, 원인모를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유희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벌박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